

시속 140km 총알 스피드로 기문 제쳐라

〈경사면에 설치된 기발〉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1 알파인 스키

스피드·테크니컬 종목으로 나뉘어 정동현, 회전 종목서 20위 돌파 목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 땅에서 펼쳐질 올림픽이기에 전국민적인 기대도 높다. 다만 동계올림픽 종목들이 하계올림픽에 비해 다소 생소하다는 점은 장벽으로 꼽힌다. 이에 평창을 2배 더 즐길 수 있도록 각 종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빠른 스피드가 생명인 '알파인 스키'는 대표적인 동계올림픽 종목 중 하나다. 스키를 타고 경사면에 설치된 기발(기문) 사이를 질주해 내려오는 스피드를 측정한다.

오는 2월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알파인 스키에 걸린 금메달은 11개다. 대회 금메달이 총 102개이고, 그 중 50개가 스키 종목에 걸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중이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알파인 스키에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으나, 이번 평창에서는 혼성 단체전이 추가돼 총 금메달 개수가 1개 늘어났다.

경기 종목은 크게 스피드(속도) 종목과 테크니컬(기술) 종목으로 나뉜다. 스피드 종목으로는 활강과 슈퍼대회전이 있으며, 기술 종목은 대회전, 회전으로 나뉜다. 해당 종목들은 모두 남녀 개인전으로 치러지며, 활강과 회전을 결합한 알파인 복합, 혼성 단체전 등에도 금메달이 걸려있다.

종목 가운데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내는 종목은 활강이다. 출발점부터 결승선까지 평균 시속 90~14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내려가는 경기이기 때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모습(위)과 대회전 경기를 치르고 있는 미국의 미카엘라 시프린의 모습. /연합뉴스

에 부상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선수는 사흘 중 최소 하루는 공식 연습에 참가해야 한다.

회전은 기문으로 표시한 코스를 지그재그로 회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는 경기다. 많은 기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 전환, 각도 조절 등 테크닉이 요구된다. 기문 개수는 표고

차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남자는 55~75개, 여자는 45~60개를 설치한다.

활강과 회전은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스피드와 테크니컬에 초점을 맞춘 만큼 스키 길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남자 스키 길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피드가 중요한 활강은 최소 218cm이지만 회전은 165cm로 짧다.

대회전은 회전과 비슷하지만 더 넓은 회전 폭을 갖는 코스다. 회전 경기보다 10m 이상 넓게 구성된다. 반면 슈퍼대회전은 대회전보다 슬로프 경사가 더 가파르고 기문 사이 거리가 25m 이상으로 더 멀다. 회전, 대회전과 달리 경기를 한 차례만 치러 순위를 정한다.

평창올림픽에서 새롭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혼성 단체전은 250~300m 코스로 치러지며, 대회전 기문을 이용해 평행 경기로 진행된다. 기문간 거리는 회전보다 길고 대회전보다 짧게 설정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남자와 여자 선수 2명씩 혼성으로 구성해 16개 나라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정한다.

알파인 스키의 대표적인 스타 선수로는 여자부의 린지 본, 미케일라 시프린(이상 미국), 남자부의 마르셀 히르셔(오스트리아), 세틸 얀스루드, 악셀 룬드 스빈달(이상 노르웨이) 등이 있다.

한국은 아직 알파인 스키를 비롯한 스키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낸 적이 없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허승욱이 회전 21위에 오른 것이 알파인 스키 경기 올림픽 최고 성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한국 알파인의 간판' 정동현이 회전 종목에서 20위권 돌파를 노린다. 정동현은 2014년 소치 대회에서는 41위를 기록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는 2월 11일 남자 활강에서 첫 메달이 나오고 24일 혼성 단체전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경기는 강원도 정선과 용평 알파인 경기장에서 나눠 진행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알파인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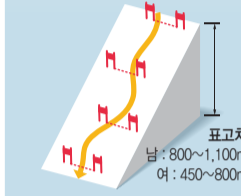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속암리 산400)
용평 알파인 경기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안리 산142-3)



뒤꿈치를 고정하는 바인딩이 장착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며 속도와 기술을 겨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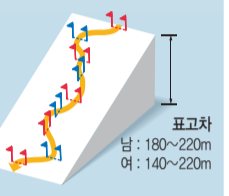
활강

정해진 코스를 순서대로 통과하여 도착한 시간 순서로 순위를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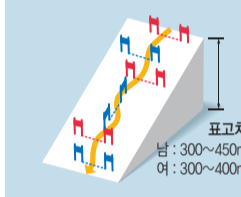
회전

기문의 위치를 바꾸어 두 차례의 경기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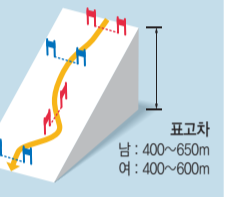
대회전

회전 종목과 같은 경기방식으로 기문 사이가 10m 이상으로 더 넓음



슈퍼대회전

대회전보다 더 가파르고 기문 사이가 25m 이상 될 한 차례만 경기하며 활강 중 2번의 점프 실시



알파인스키 경기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	9	10	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연합뉴스

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뉴스스탠드



완벽하지 않은 형제의 따뜻한 성장

film review

/신원선 기자 tree6834@

그것만이 내 세상

관계 속 아픔 치유해가는 과정 풀어 열연으로 환상적인 형제 케미 보여

완벽해보이는 누군가도 결핍은 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기도 한다.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감독 최성현)은 부모와 자식, 형제, 그리고 넓게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웃음과 감동으로 풀어낸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한물간 전직 복서 조하(이병헌)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 인숙(윤여정)과 서번트 증후군인 동생 진태(박정민)를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과정을 그린 영화다.

이병헌이 맡은 조하는 주먹 하나 믿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자존심만 남은 한물간 전직 복서다. 만화방과 친구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17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엄마 인숙과 재회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린 시절 엄마의 부재로 인해 가슴에 많은 상처를 품고 살아온 조하는 일부러 인숙과 진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툭툭 거리면서도 인숙을 대신해 진태를 복지에 대해 데려다주는가 하면 진태의 늘어진 티셔츠를 신경쓰기도 한다.

한편 서번트증후군을 앓고 있는 진태는 피아노 연주에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 인물. 모든 질문에 '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지만, 누구보다 순수하고 피아



포스터와 스틸컷. /CJ엔터테인먼트

노를 칠 때만큼은 같은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로 멋짐이 폭발한다.

난생 처음 함께 살게 된 세 가족이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모습은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따뜻한 웃음을 안긴다.

영화는 어린 시절 조하를 남겨두고 집을 나간 엄마 인숙과 조하의 갈등이 점차 완화되는 내용을 그림과 동시에 두 형제의 케미에 주목한다. 이병헌과 박정민은 흠 잡을 곳 없는 완벽한 연기로 극의 몰입력을 높인다.

코믹가족극이라는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장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두 배우의 열연 때문.

이병헌의 능청스러운 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연기와 박정민의 섬세한 장애 연기가 빛어내는 환상적인 형제 케미는 이 영화가 내세우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다.

특히 '내부자들' '마스터' '남한산성' 등을 통해 완벽한 연기력을 입증한 천의 얼굴 이병헌은 이번 작품에서 전작에서는 본 적 없는 맛깔나는 코믹 연기를 선보일 예정. 동네 형 같은 친근하고 유쾌한 매력의 이병헌을 만날 수 있다.

박정민 역시 놀랍다. 많은 감독들과 배우들이 훌륭한 배우로 주목해왔던 그답게 서번트증후군을 지닌 '피아노 천재'를 독창적으로 그려내면서 영화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촬영 3개월 전부터 연습에 매진, CG 처리 없는 피아노 연주 장면을 만들어낸 박정민의 노력에 제작진 역시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진태의 천재성을 알아봐주고 뒤에서 응원하는 한가울 역의 한지민도 스토리의 확장에 일조한다. 완벽한 천재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떨쳤던 한가울. 하지만,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뒤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조하-진태 형제를 만나게 된다. 진태의 영혼이 담긴 피아노 선율에 다시금 세상 밖에 한걸음 내딛는 그녀의 모습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한단계 성장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가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소재인 '가족'을 살아있는 캐릭터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담아낸 '그것만이 내 세상'은 오는 17일 개봉한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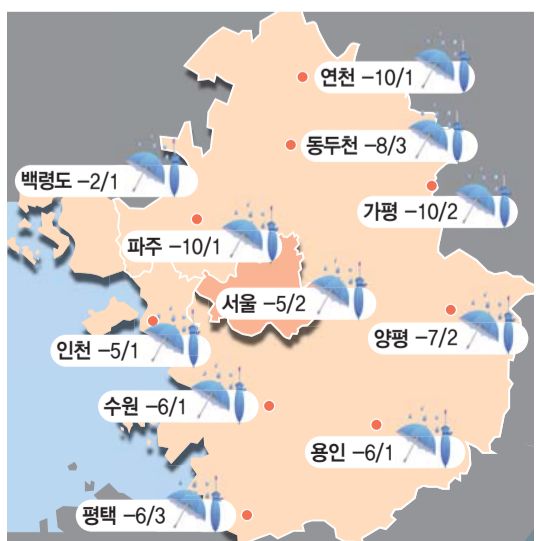
1월

5일

음력 : 11월 19일

수도권 날씨

-5 ~ 2°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